

전남, 오늘 추가 등교...고1·중2·초3~4 총 6만여 명

전남교육청, 격일제·교차수업 등으로 밀집도 최소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생활지도 강화방안도 마련

정부의 학교 급별 순차적 등교개학 방침에 따라 6월 3일(수) 전남도내 고1과 중2, 초3~4학년 학생 6만여 명이 추가로 등교 수업에 나선다.

지난달 20일과 27일에 이어 이날 새롭게 등교하는 학생은 고1(127교 1만 6,100명) 중2(130교 1만 3,880명), 초3~4(428교 2만 9,331명), 특수학교 546명 등 모두 5만 9,857명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전남 도내에서는 전체 학생(20만 6,943명)의 79.1%인 16만 3,739명이 등교수업을 하게 되며, 오는 6월 8일(월) 중1과 초5~6학년까지 등교하면 모든 학교의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등교 수업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 밀집도 및 접촉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아이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로 했다. 특히,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의 학생 분산 대책을 촘촘하게 세워 밀집도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생 900명 이상 초등학교(20교)의 경우 1,2학년 우선 등교를 권장하고, 3~6학년은 격일 또는 격주제 등교를 운영해 6월

8일 이후 전교생이 등교하더라도 등교학생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교생 1,037명(38학급)인 광양마동초등학교는 3~6학년을 홀수반과 짝수반으로 나눠 등교 및 원격 수업을 하루 씩 번갈아 운영한다. 순천 신대초(전교생 1,257명)는 3~4학년과 5~6학년을 오전·오후로 나눠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도 지역감염 우려가 확산되는 학교의 경우 등교학생이 2/3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즉, 3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1~2학년은 등교 및 원격 수업을 격주로 학교 여건과 상황에 따라 운영 방법을 다르게 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급당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전남예술고의 경우 1~2학년은 격주 등교와 학급 별 교차수업을 병행하고, 매일 등교하는 3학년은 특별교실을 활용해 학생을 분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8개 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차량 내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 1억 4,4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학버스를 증차하고, 급식 지도 보조인력과 안전요원 등을 지원할 계



무안 일로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길에 발열체크를 받고 있다.

획이다.

또한, 등교수업 후에도 밀집도 완화를 위해 마등교하는 초등학교 학생 중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지원을 포함한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코인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학생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등교수업 학생들의 심리 지원도 펼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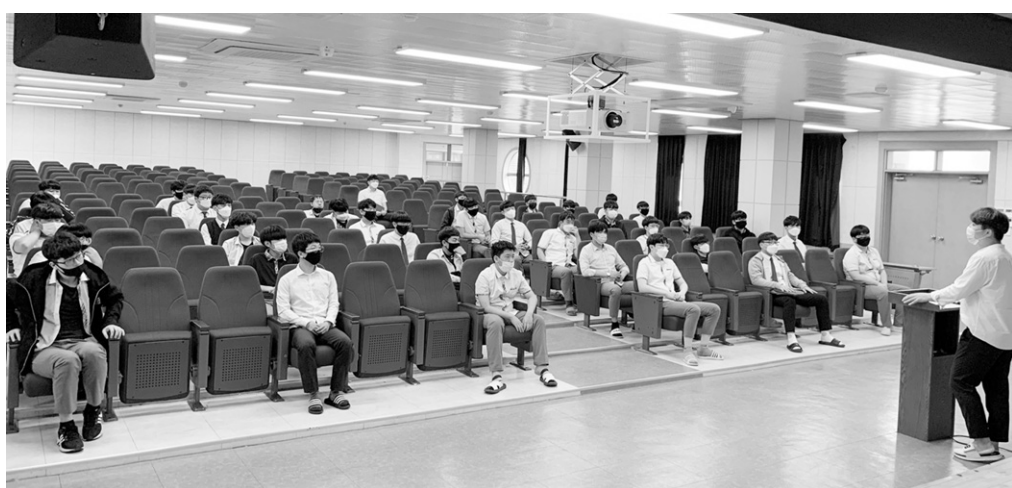
장석웅 교육감은 “등교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면서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어렵게 맞은 등교수업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한 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순천전자고 코로나 절벽 속 취업처 확보 성과

2019년 1월 졸업생들, 21개 기업에 54명 취업 성과 올해도 13개기업 30명 취업 약속...100% 취업 도전



순천전자고등학교(교장 정병원)가 코로나19로 인한 특성학교 취업난 속에서도 전 교직원들이 취업처 발굴에 나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천전자고등학교는 졸업생의 취업 지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2017년부터 4년째, 중소기업 특성학교 인력양성사업과 JOBS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졸업한 2019년 졸업생들은 21개 기업에 54명이 취업하여,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대부분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올해 특성학교 졸업생의

취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도 순천전자고는 학기초부터 전 교직원들이 나서서 취업처 확보에 노력한 결과 6월 1일 현재(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외 13개 기업으로부터 30명의 취업을 이미 약속 받았으며, 올해 졸업생도 100% 취업 달성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전자고 취업부장 이승구 교사는 “우리 학교에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분석해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집중 지도하고, 자격증 취득지도 및 학과별 동아리반 편성으로 첨단·심화기술 습득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 모두를 취업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나아가 수도권 양질의 취업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민영 교감은 “이와는 별도로 순천전자고는 올해 신규 지정된 특성학교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공무원반, 부사관반, 공사반, 솔배동아리반을 연중 운영하여 우리 순천전자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신안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연찬회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홍)은 1일 목포여울림아카데미에서 관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개학이 늦어져 방과후학교가 개교하지 못한 데 따른 외부강사들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열렸다. 또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강사 간 상호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광주전남상담연구소 원장을 초청하여

‘교사와 학생간 관계 증진’을 주제로 방과후강사와 학생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기법 및 교사의 역할을 익히고 교사와 학생간 라포 형성을 위한 관계 증진 실습을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법 연수를 진행하였다.

김재홍 교육장은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배움을 주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안은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따뜻한 마음과 질 높은 수업으로 학생들의 소질 계발과 특기적성 지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광공공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 책 놀이터 조성

영광공공도서관(관장 장혜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임시휴관 기간 중 내·외부 노후시설 개선 및 어린이자료실 공간 재구성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2일 개관했다.

또한, 야외휴게실에는 벽면에 정현주 시인의 시『거기 우리가 있었다』의 한 구

절을 새겨 이용자가 자신과 미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다.

특히 어린이자료실은 촉감도서, 사운드북, 팝업북 등을 비치했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방’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